

총여학생회 후보에게 반대표를!

1. 우리는 왜 “참 여성”에 반대하는가?

1) ‘참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비판은 ‘참 여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총여학생회 후보단(이하 후보단)이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3월 18일에 배포된 선거운동 자료집을 충실히 인용하자면, 참여성이란 “지혜로운 아내, 훌륭한 엄마, 그 이외의 다른 것을 할 때 느끼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여성”이며 “연세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정신, 낮아져서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진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을 가리킨다. 어쨌든 가치있는 단어들의 조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정의 속에 서로 대립되는 의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모양처인 한 여성에게 ‘다른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거의 형용모순이다.(아! 물론 희생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말이 되긴 한다.)

다음으로 “참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 아니 한 여성에 대해 하나의 고정적인 성적 모델을 강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은 단호히 “이것이 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그 ‘참’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독해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성(性)에 대한 생물학주의적 가정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단 두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성의 본질이 정치 이전에 주어진다라는 사실...”, “신체적 조건을 무시한 동질화의 주장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생물학주의가,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라 - “남성들의 성적 욕구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강간이나 성희롱은 근절될 수 없다”(!!).

이쯤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후보단이 주장하는 ‘참 여성’의 개념은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부장제가 요구하고 용납하는 범위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 ‘사랑과 화합’ - 불가능한 작전?

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초로서 후보단이 제시하는 것은 ‘사랑과 화합, 조화와 섬김’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립과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운동의 흐름’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사랑, 화합, 조화, 섬김’의 모호함과 추상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자문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강간, 취업 불평등, 가사노동, 아내 구타, 음담패설의 폭력 등의 혼한(!) 사건들에서부터 불합리한 미적(美的) 기준, 인류역사에서 여성의 부재(不在),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못박는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라고 단순화시켜볼 수 있다. ‘불평등과 차별’이란 그 자체로서 갈등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화합’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현실을 ‘대립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대립적-갈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자. 만원 버스 안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 ‘사랑과 화합’은 이 여성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여성과 남성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격적인 관계 - 이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의 갈등과 모순이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갈등과 억압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자’는 말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은가.

3) 엘리트주의, 학벌주의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선거운동 자료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있는 “연세 여성”이라는 조합어는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 “이 나라의 21세기를 젊어지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수를 이끌어 나갈 소수의 지도자 연세여성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났던가? 그렇지 않다. 주위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는 처음이고 결코 쉽지도 않지만, 연세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여성문제를 시혜의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은 가장 남성적인 사고방식이며, ‘연세’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근거없는 자신감에 불과하다. 학력 높은 여성에게는 취업 불평등이 없는가? 외모가 예쁜 여성은 가사노동을 강요받지 않는가? 연세 여성은 성희롱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후보단이 연세“여성”의 문제를 “연세” 여성의 문제로 혼동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弱者)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변화를 그 핵심으로 하는 여성운동이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에 침윤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97년도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것 맞습니까?”

이제 초점을 ‘선거’에 맞추어 보자. <참 여성을 향한 4가지 제안>에서 후보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은 크게 4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여동문과의 연계.

『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연계인가이다. 그러나 후보단은 여기에서도 역시 (배제된 여성의 역사 및 여성들의 연대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연세” 여성상의 기준과 ‘더 좋은 직업’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여동문과의 연계는 그동안 여학생처에서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영역의 제도적 사업인데, 여학생 자치기구의 차원에서 굳이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변화와 섬김의 주체로서 구속학우 방문사업 및 북한 여성을 돕는 연구.

셋째, 건강한 대학 환경 분위기 조성 - 좋은 책 100권 읽기 및 금연 금주 캠페인.

『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 이 두 항목을 총“여”학생회 선거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넷째, 복지시설의 확보.

『 바로 여기에서 후보단의 진부함이 여실히 증명된다. 후보단이 언급하고 있는 도서관 내 생리대자판기 설치,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등은 매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문제는 후보단이, ‘여성들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정치적 함의나, 여성 복지의 문제가 시혜가 아닌 ‘자치’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함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여성에게 이러한 복지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후보단은 “연세대 내의 여학생 비율 증가”이외의 다른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

3. 여성운동에 대해 말해야 한다 - 몇 가지 오해들

-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남녀의 다른 점을 인정치 아니하고 동질화자는 주장을 내세웠다.”(p.8) 『 (아니, 이런 주장을 하는 페미니즘이 있었나?) 페미니즘의 다양한 조류들에 대한 후보단의 심각한 곡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현실적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여성운동은 없다. 문제는 “어떤 여성성/남성성인가”이다. 여성성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인가? 남성성은 긍정적이고 우월한 것인가? 또는 후보단의 주장대로 여성성/남성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여성운동이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분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서로 상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분노를 삭인 사랑과 화해란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들에게만 강요되었던 희생인가.

- “여성지위 향상이 여성에 의한 남성 지배를 꿈꾸는 건 아닌지...”(p.14) 『 걱정할 것 없다. 이제까지 어떤 여성 운동도 결코 남성지배를 꿈꿔온 적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비난은 다만 지렁이가 꿈틀거린다고 호들갑떠는 남성들의 공포일 뿐이다.

여성운동과 성정치학에 대한 후보단의 관점을 요약하면, 사랑이 결여된 무조건적 대립과 분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부끄러움, 남성에 대한 지배 음모(?) 등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총여학생회 후보단은 여성운동을 비상식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4.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한다

‘참 여성’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생물학주의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실재(實在)하는 억압과 갈등에 대한 신비화, ‘사랑과 화합’이라는 운동 방향의 불가능성, 엘리트주의-학벌주의적 세계관, 선거공약의 진부함 및 비정치성 —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최경화/이수현 총여학생회 후보단>에 반대한다. 여성운동은 모든 사람들과 연대의 전선을 가질 수는 없다.(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가부장제가 부여한 남성적 특권을 당연한 것마냥 생각하는 오만한 부류들, 여성에게 생리휴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본가들, 여성운동을 음해하는 호들갑스러운 부류들, 이 모두와 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후보단은 여성운동의 한 흐름이라기 보다는 그 장애물에 가깝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한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상기해 보자. 여성의 문제는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가부장제의 권력 작용이다. 때문에 변화를 위한 운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제도나 법률의 차원과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적 메카니즘 모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일상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여성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0대 총여학생회 후보단에게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있는가?

“재선거를 주장한다!”